

## 초가지붕 예배당과 고사리 문고

동화작가가 된 어느 섬소년 이야기

송재찬 | 동화작가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이 글을 쓰기 위해 내 마음, 유년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푸른 바다의 해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의 고향 제주도. 아침잠을 깨우는 것도, 해가 떨어졌을 때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도 바다였다. 해안을 따라 자리잡은 마을엔 늘 해조음이 밀려왔다. 그리고 내가 외가 뜰에 심었던 여러 종류의 나무와 꽃들, 내가 기르던 올챙이와 매뚜기들... 그러나 어느 방에도 읽을 책은 없었다. 얇은 땀이 책상엔 몇년을 거둬 써온 교과서(나 역시 선배에게 돈을 주고 산)만이 텅그러니 놓여 있었다.

잠 안 오는 밤을 대신할 아무 것도 없던 초등학교 시절, 나는 국어 교과서의 문학교재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들도 나는 몇번이고 읽었다.

초등학교 시절, 한 권의 동화집도 읽지 못한 나는 용케도 동화작가가 됐다. 그러나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동화를 쓸 수 있도록 이끌어준 분이 초가지붕 예배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3학년 때던가 선생님이 전래동화 한편을 들려줬는데 얼마나 재미 있었는지 우리는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하곤 했다. 장에 가서 거울 하나를 사다가 숨겨두고 몰래 보다가 색시가 보게 됐는데 젊은 여자를 광에 숨겨뒀다며 노발대발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았다. 선생님에게도 책이 없었을까? 몹시 이야기에 굶주려 있던 나는 여전히 밤이면 교과서를 꺼내 읽곤 했다.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교회에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서 초가지붕의 교회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야기 선생님'을 만났다.

보리와 조를 주식으로 삼던 그 시절, 담임목사가 상주하지 않았던 교회는 예배시간이 늘 들쭉날쭉했고 끝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어른들이 모이지 않는 저녁 예배는 아이들이 다 모여 비로소 시작됐고 지루하게만 여겨졌던 예배가 끝나면 남자 선생님이 2부 순서를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 구연이었다.

짧은 이야기일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줬다. 나는 거기서 달타냥이 등장하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다.

숙제로 모든 공부가 끝나던 그 시절 나는 일요일도 수요일도 빼놓지 않고 해만 떨어지면 교회로 달려갔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해신고 허면..."

친절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줄거리를 간추려 주셨고, 지난번에 못들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졸라 이미 듣고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게 없었다.

"달타냥이..."

우리는 숨죽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바다가 가까워서 해조음이 크게 들려왔

지만 우리 귀에 그 소리가 들려올 리 없었다. 손에서 땀이 배어나고 조바심으로 입술이 바작바작 타들어 갈 때쯤 시나브로 어둠이 깊어졌고 이야기도 끝났다. 그런 밤이면 모두 손전등도 없이 그 어두운 마을길을 더듬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면 식구들은 이미 들어와 자고 있었다. 한 이불 속에서 발을 막고 자던 때라 나는 슬그머니 옷을 벗고 빈자리로 몸을 밀어 넣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와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느라 창을 흔드는 바람소리도,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초가 예배당에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키는 경중 자랐고 중학교에 들어갔다. 4월이었을 것이다. 막 알파벳을 뎀 우리에게 담임이던 H선생님이 말했다.

“지금 고사리 꺾는 게 한창이지? 다음, 다음 월요일까지 고사리 한 자루씩 꺾어 삶아서 말려오너라. 한 사람도 어기면 안된다.”

담임은 무섭기로 소문난 영어 담임이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뭐 할 건데요?” 하고 묻기라도 했겠지만 우리는 “예!” 하고 대답했다. 나 역시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들 틈에 섞여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바닷가에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고기를 잘 잡거나 소리를 잘 따거나 하지 못했다. 고사리 꺾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책임량을 채웠을 뿐이다.

그리고 고사리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어느새 신록이 우거지고 5월 말까지 입어야 하는 검정교복이 적적 달라붙는 어느날이었다.

학교에 가보니 교실 앞쪽 구석에 새 책장 두 개가 툇 들어서 있고 그 속에는 책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지난번에 고사리 꺾어다 냈었지? 고사리 팔아서 책 사왔다. 많이 읽어라.”

나는 멍하니 선생님을 쳐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 학교 도서실이 있기는 했지만 도서실 책장은 늘 무거운 자물통을 물고 있었다.

선생님이 고사리를 팔아 사온 책들은 세계명작들이었다. 그리고 간간이 이원수의 《민들레의 노래》, 조훈파의 《알개전》, 그리고 《역만이의 미소》같은 게 섞여 있었다.

나의 독서는 이렇게 시작됐다. 아마 그 시절이 없었으면 내가 동화를 쓸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읽었던 책들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읽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신이 나서 책 속에 파묻혀 살았던가. 지금도 나는 우리 교실 학급 문고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며 그때를 떠올리곤 한다.

어렸을 때 책을 마음껏 읽지 못해서인지 나에게 책에 대한 갈증이 지금도 있다. 제대로 다 읽어내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책을 사들이는 버릇은 그래서 생긴 게 아닐까.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봉급의 대부분을 책을 사는 데 쏟아 부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집들, 삼중당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되는 문고본 한국 소설들, 뭔가 좀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산 한자 투성이의 철학책들과 비싸다 싶으면서도 산 컬러판 미술전집들은 모두 그 시절 구입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책들은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제주도에서 경상도로, 다시 서울로 이사를 다니는 사이에 책들은 여기저기로 떠났다. 그때 산 책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신구문화사가 1972년에 펴낸 《소년소녀 한국의 문학전집》이다. 우리나라 창작동화들을 묶어놓은 아이들의 책,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들여놓는 그 전집을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샀고, 결국 나는 동화 작가가 됐다. 초가 예배당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를 만들어줬고 《소년소녀 한국의 문학전집》은 동화를 쓰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전집은 내가 아끼는 책 가운데 하나고 이 책 속에 나의 20대 추억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다음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

